

한국사회과학조사(KMOS) 18-1호

충남대학교 아시아어문연구소는(연구소장 : 조성겸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국사회과학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 한국사회과학조사는 특정 기관의 의뢰를 받아 진행되는 조사가 아닌, 한국연구재단의 학술토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조사의 신뢰성과 결과의 중립성에 근거하고 있다.

■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 조사 지역 : 전국
- 표본 수 : 2,010명(유효표본)
- 표본추출방법 : 무작위 추출법 (Random Sampling)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2\%$
- 응답율 : 62.8%
- 조사 방법 : 면접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대면면접조사
- 조사 일자 : 2018년 4월 23일~6월 22일(2개월간)

■ 조사 배경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현상은 다양한 사회 요인들이 결합하여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역시 다양한 분야들이 융합하여 보다 복합적인 심층 분석이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조사 목적

한국사회과학조사(KAMOS: Korea Academic Multimode Open Survey for Social Sciences)는 표본추출, 설문구성, 실사관리 등 과학적·체계적·엄밀성을 확보한 학술조사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사회과학연구의 적실성 제고와 미래 사회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 및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이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사회과학 분야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체계를 마련/시행함으로써 사회과학 관련 융합적 시각 및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연구자 및 일반 시민에 제공함으로써 사회과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 조사 문항 구성

본 조사의 문항 구성은 조사의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등에서 발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 및 사회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옵니버스 형태’의 가변적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는 ‘연구수요 맞춤형’일 뿐 아니라 높은 시의성을 띠는 ‘시대 맞춤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전혀 없는 가치를 지닌다. 시기별 연구주제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항수집 방식은 자연히 시의성 높은 연구주제와 관련 문항의 선택으로 이어지며, 이는 사회과학연구에서 전통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현실과 연구 간의 시차(time lag)를 줄이는 데 공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향식 방식은 자료수집 시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다 수월히 연구로 확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본격적인 ‘문제중심 사회과학연구(problem-driven social sciences)’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 인용/보도 시 유의사항

본 결과에 대한 인용 / 보도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나, 위의 조사 개요와 함께 한국연구재단의 학술토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충남대학교 아시아어문연구소에서 시행된 한국사회과학조사 자료임을 명시해야 한다

국가관/민족

■ 한국 국민 자긍심, '자랑스럽다' 72.5%

한국 국민인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는 자긍심 인식층이 78.3%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60세 이상에서 87.7%로 특히 높았다.



■ 다문화 가정 친근감, 절반씩 팽팽히 맞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친근하다'는 응답이 57.0%, '친근하지 않다'는 응답 43.0%에 비해 다소 높았다. 지역규모별로 읍/면 지역이 63.5%로 광역/특별시(54.6%), 시/동지역(56.9%)에 비해 '친근하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계

■ 남북통일, 필요 인식층 작년 대비 10%p 상승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70.2%로 나타나, 지난 2017년 대비 10.2%p 상승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60세 이상 79.1% > 50대 75.4% > 40대 71.5% > 30대 62.8% > 20대 이하 58.9%)

응답 항목	2018 (%)	2017 (%)	2016 (%)	Gap (p)
매우 필요	22.6	18.9	17.2	3.7
다소 필요	47.6	41.1	46.1	6.5
별로 불필요	26.0	32.2	29.6	-6.2
전혀 불필요	3.8	7.8	7.2	-4.0
필요(1+2)	70.2	60.0	63.2	10.2
불필요(3+4)	29.8	40.0	36.8	-10.2

■ 최근 남북관계 변화, 바람직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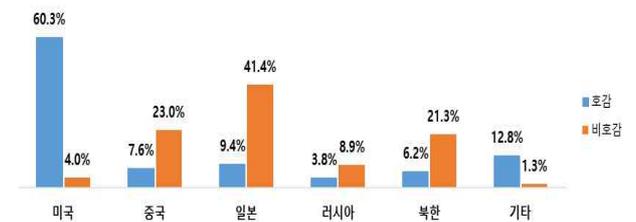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0.0%(‘매우’ 21.5% + ‘대체로’ 58.5%)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 20.0%(‘전혀’ 2.7% + ‘별로’ 17.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최호감 국가 '미국' 매우 높아
최비호감 국가, 일본, 중국, 북한 順

최호감 국가는 '미국'이 60.3%로 가장 높고, 나머지 국가 들은 한 자리 수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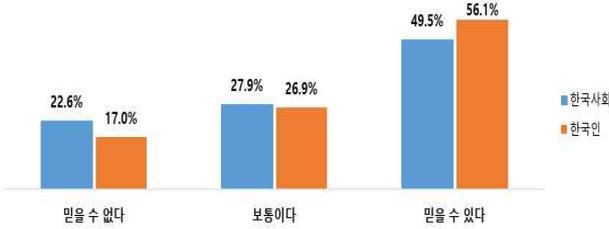
비호감 국가는 '일본'이 41.4%로 가장 높고, '중국' (23.0%), 북한(21.3%)이 뒤를 이었다.



사회신뢰와 갈등/계층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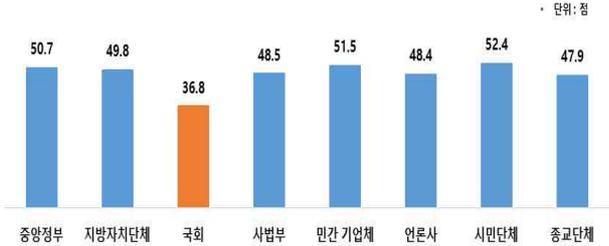
한국 사회/한국인에 대한 신뢰도, 절반을 다소 상회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100점 만점 기준 54.2점,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는 100점 만점 기준 57.0점으로 나타났다.



국회,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신뢰도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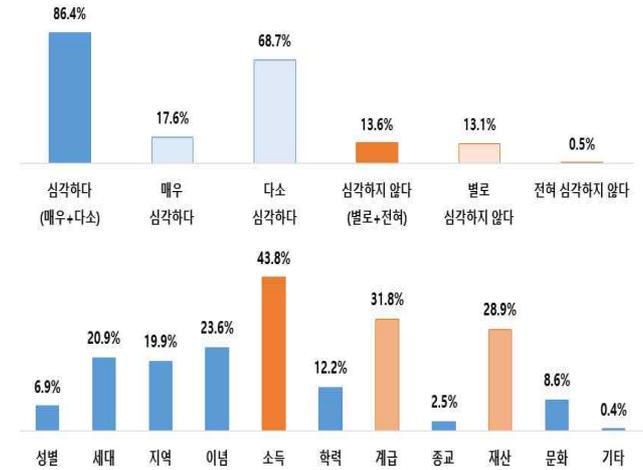
주요 사회기관 각각에 대해 얼마나 믿음이 가는지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50점 전후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가 36.8점으로 주요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응답 항목	평균점수 (점)
시민단체	52.4
민간 기업체	51.5
중앙정부	50.7
지방자치단체	49.8
사법부	48.5
언론사	48.4
종교단체	47.9
국회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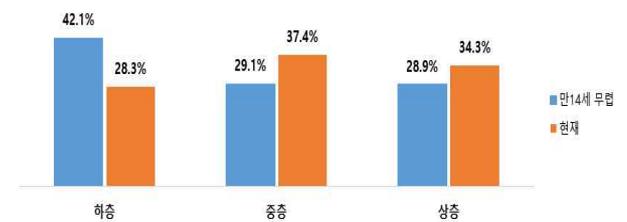
한국 사회 갈등,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
- 소득, 계급, 재산 등 경제력이 갈등 유발의 주 요인

한국 사회의 사회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6.4%로 매우 높았다.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1+2 순위 응답 비율)으로는 소득(43.8%), 계급(31.8%), 재산(28.9%) 등 경제력과 관련한 요인이 주로 꼽혔다.



만14세 대비 귀속 계층 상층 늘어나

현재 본인의 주관적 귀속계층은 50.5점으로 상층(34.3%)이 하층(28.3%)보다 다소 높으며, 본인의 만14세 무렵 주관적 귀속계층은 45.8점으로 하층(42.1%)이 상층(28.9%)보다 높아, 만14세 무렵보다 현재가 상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 경제력 수준, 불평등 인식이 높아

한국 사회의 경제력 수준에 대해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52.6%로, 평등하다는 인식 21.7%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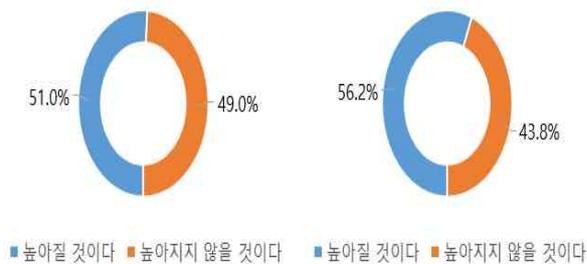
■ 만14세 무렵 본인 수준, 하층이 상층에 비해 높아

경제적 생활 수준은 ‘중층’이 44.2%, ‘하층’이 42.8%로 높고, ‘상층’은 13.0%에 불과하였다. 문화적인 생활 수준은 ‘하층’이 47.3%로 가장 높고, ‘중층’이 37.6%, ‘상층’이 15.1%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맥이나 교류의 폭은 ‘중층’이 46.1%로 나타난 가운데, ‘하층’이 35.2%, ‘상층’이 18.6%로 나타났다.



■ 세대 내, 세대 간 이동 가능성, 귀속 계층에 따라 인식의 차이 나타나

세대 내(51.0%), 세대 간(56.2%) 이동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본인의 주관적 귀속 계층별로 살펴보면, 하층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는 부정 인식이 67.0%, 60.2%로 높은 반면, 상층에서는 ‘높아질 것이다’는 긍정 인식이 65.7%, 69.3%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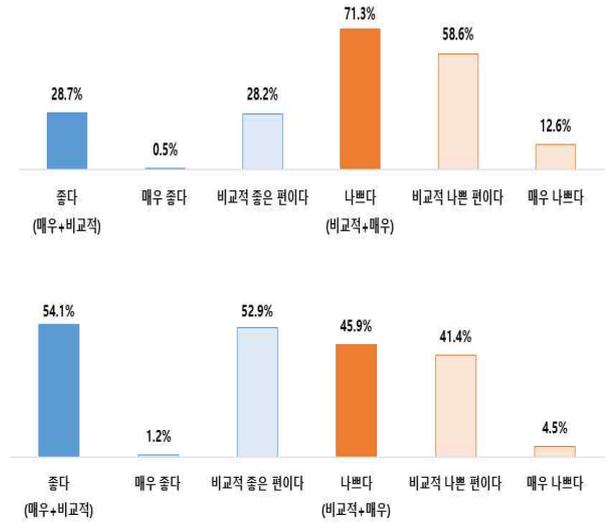
경제/직업

■ 국가 경제 상황, 부정 인식 76.5%로 높아
가계 경제 상황, 긍정과 부정 인식 비슷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해 ‘나쁘다’는 부정 인식이 71.3%로 매우 높았고, 본인 가족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좋다’는 긍정 인식이 54.1%로, ‘나쁘다’는 부정 인식 45.9%로 비슷했다.

‘좋다’는 긍정 인식은 생활 수준 인식 상층(83.7%), 501

만원 이상 소득층(70.2%) 등 부유층에서 높은 반면, 생활 수준 인식 하층(59.4%), 300만원 이하 소득층(40.6%) 등 빈곤층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 일의 만족도 66.6%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직업, 가사, 학업 등의 일에 대해 ‘만족한다’는 만족층은 66.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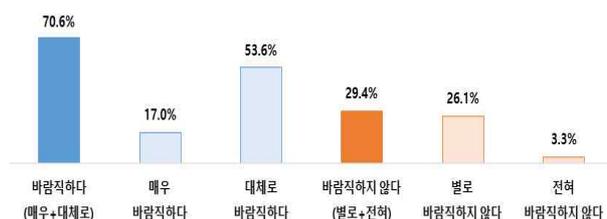
직업별로 ‘만족한다’는 만족층을 살펴보면, 농/임/어업이 77.1, 관리/사무/전문직이 73.8%로 특히 높은 반면, 무직/기타가 53.0%, 생산/서비스직이 57.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 최저임금 인상, 바람직하다 70.6%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긍정 응답이 70.6%(‘매우’ 17.0% + ‘대체로’ 53.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18~29세(81.9%)에서 ‘바람직하다’는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50대(62.5%)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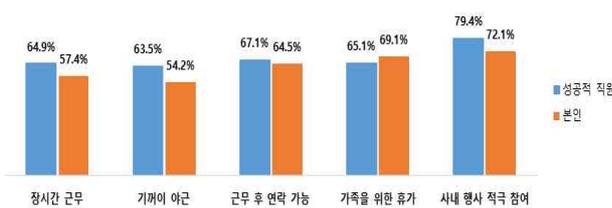
■ 근로시간 단축, 바람직하다 71.7%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긍정 응답이 71.7%(‘매우’ 18.2% + ‘대체로’ 53.5%)로 높았다. 연령별로 18~29세(85.6%)에서 ‘바람직하다’는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50대(64.4%), 60세 이상(63.3%)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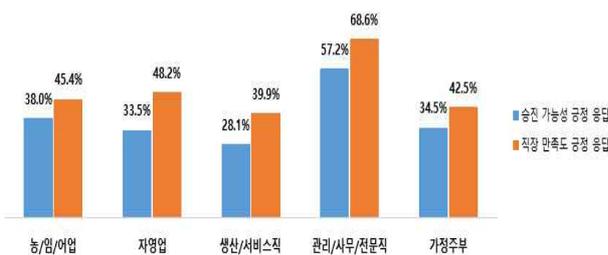
■ 성공한 직원과 본인 이미지, 사내 행사나 부서회식에 적극적 참여가 가장 높아

성공한 직원과 본인의 이미지 각각을 질문한 결과, ‘사내 행사나 부서 회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성공적 직원(79.4%), 본인 자신(72.1%)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장시간 근무한다’(7.5%p)와 ‘기꺼이 야근을 한다’(9.3%p)의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 직장 승진 가능성, 현 직장 만족도, 관리/사무/전문직이 높고, 생산/서비스직이 상대적으로 낮아

현 직장에서의 승진 가능성에 대해 관리/사무/전문직은 57.2%가 ‘그렇다’는 긍정 인식을 보인 반면, 생산/서비스직은 ‘그렇다’는 긍정 인식이 28.1%에 그쳤다. 현 직장에서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관리/사무/전문직은 68.6%가 ‘그렇다’는 긍정 인식을 보인 반면, 생산/서비스직은 ‘그렇다’는 긍정 인식이 39.9%에 그쳤다.



가정

■ 가정생활 전반적 만족도, 87.9%로 매우 높아

본인 가정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87.9%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성별로 남성(90.4%)과 여성(85.5%)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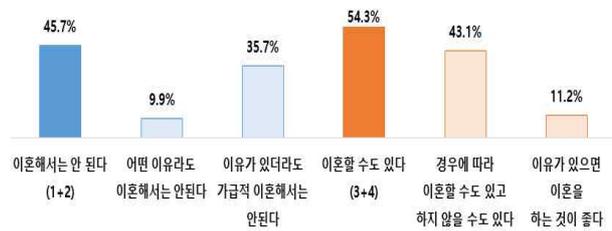


■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 높지만, 이혼할 수 있다는 인식도 긍정이 높아

결혼은 ‘해야 한다’는 응답이 87.9%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12.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관계 없이 ‘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한다’는 60세 이상 34.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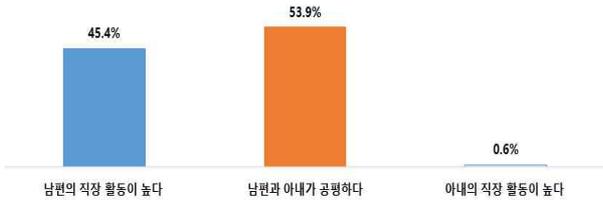
이혼에 대해 인식을 질문한 결과, ‘이혼할 수도 있다’는 응답이 54.3%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 45.7%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이혼할 수도 있다’는 응답은 20대 이하(74.4%)에서 특히 높은 반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60세 이상(66.7%)에서 높았다.



■ 남편과 아내의 역할, '공평하다' 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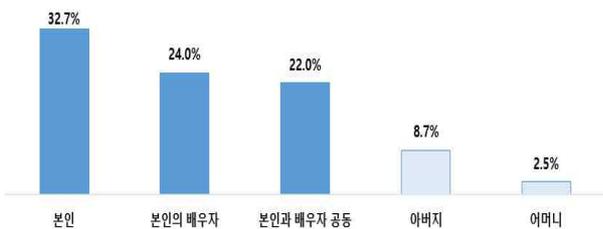
남편과 아내의 역할로 가장 공감이 되는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남편과 아내가 공평하다'는 응답이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편의 직장 활동이 높다' 45.4%가 그 뒤를 이었다.

- 연령별로 18~29세(71.7%)에서 '남편과 아내가 공평하다'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남.



■ 가정 주 소득 부담 주체, 본인 32.7%, 배우자 24.0%, 본인과 배우자 공동 22.0%

본인 가정의 주 소득 부담 주체로 '본인'이 32.7%, '본인의 배우자'가 24.0%, '본인과 배우자 공동'이 22.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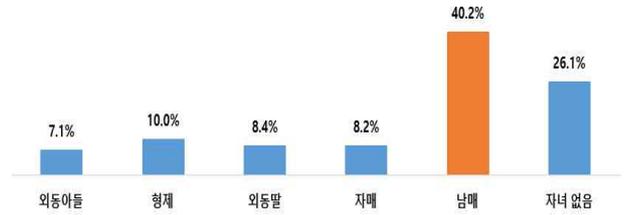
■ 생계 유지 외 추가 소득 경제활동 '원한다' 79.5%

생계 유지 수단 확보 시 추가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원한다'는 응답이 79.5%('매우' 18.5% + '비교적' 60.6%)로,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 20.5%('전혀' 2.0% + '별로' 1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자녀 성별 구성, '남매' 가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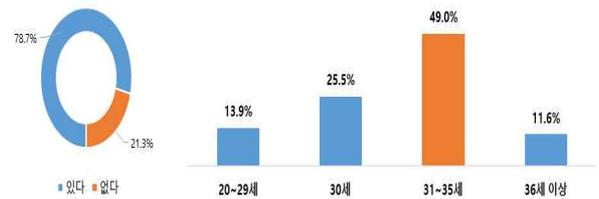
현재 자녀의 성별 구성 형태는 '남매'가 40.2%로 가장 높고, '자녀가 없다'가 26.1%, '형제'가 10.0%, '외동딸'이 8.4%, '자매'가 8.2%, '외동아들'이 7.1%로 나타났다.



■ 미혼 결혼 의향 78.7%, 예상 결혼 시기 31~35세

미혼 응답자 439명을 대상으로 결혼 의향을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78.7%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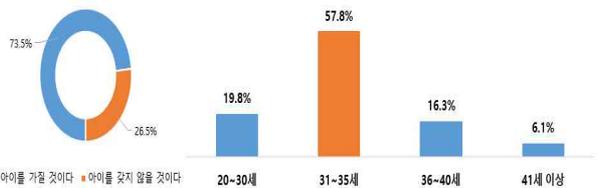
미혼 중 결혼 의향이 있는 응답자 345명에게 예상 결혼 시기를 질문한 결과, '31~35세'가 49.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출산 의향 73.5%, 예상 출산 시기 31~3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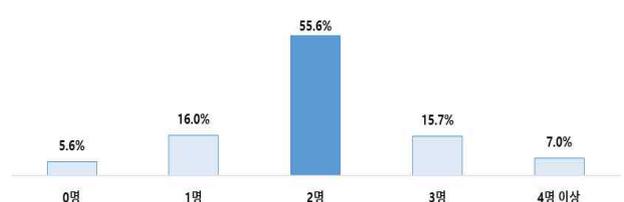
미혼과 기혼 중 자녀가 없는 응답자 525명을 대상으로 장래에 아이를 가질 것인지 질문한 결과, '아마도 아이를 가질 것이다'는 응답이 73.5%였다.

이들 중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응답자 386명을 대상으로 첫 아이 출산 시기를 질문한 결과 평균 33.7세로 나타났으며, 세부 구간별로는 '31~35세'가 57.8%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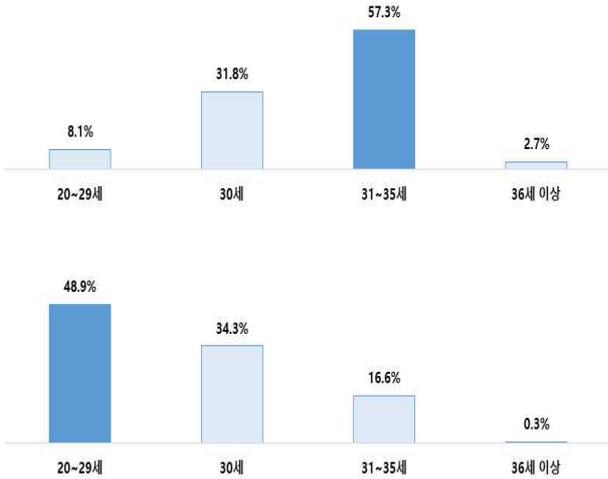
■ 평생 가지고 싶은 자녀 수 2.06명

평생 가지고 싶은 자녀 수는 2.06명으로 나타났다. 세부 구간별로 살펴보면 '2명'이 55.6%로 과반을 차지했고, 그 외 '0명'이 5.6%, '1명'이 16.0%, '3명'이 15.7%, '4명 이상'이 7.0%였다.



■ 결혼 적령기 남성 31.8세, 여성 29.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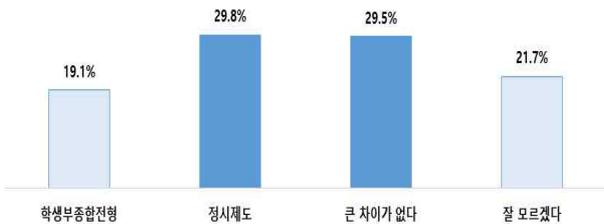
남성은 결혼 적령기가 평균 31.8세로 나타났고, 세부 구간별로 '31~35'세가 57.3%로 가장 높았다. 한편 여성은 결혼 적령기가 29.2세로 나타났고, 세부 구간별로 '20~29세'가 가장 높았다.



교육 - 입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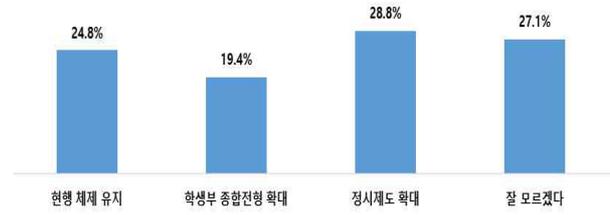
■ 정시제도, 학생부종합전형보다 바람직 다소 높아

학생부종합전형과정시제도 중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큰 차이가 없다'(29.5%), '잘 모르겠다'(21.7%) 등 태도 유보층이 절반에 달한 가운데, '정시전형'이 29.8%로, '학생부 종합전형' 19.1%보다 다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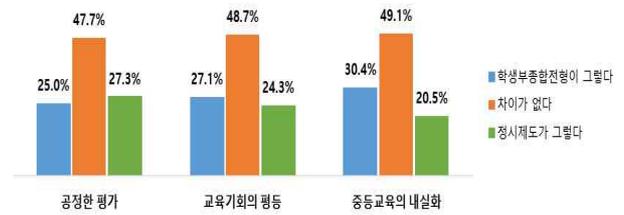
■ 향후 변화할 입시제도 방향, 각 보기의 결과 비스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70%인 상황에서 향후 변화해야 할 입시제도 방향에 대해, '정시제도 확대'가 28.8%, '현행 체제 유지'가 24.8%,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가 19.4%, '잘 모르겠다'가 27.1%로 나타났다.



■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제도 적합성 차이 크지 않아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40% 후반을 차지한 가운데,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제도는 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중등교육 내실화에 적합성은 '학생부 종합전형'(30.4%)이 '정시제도'(20.5%)보다 다소 높았다.



■ 입시전형 '고교 내신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해야

대학입시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할 항목으로 1+2 순 종합 기준으로 '고교 내신 성적'(54.0%)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52.9%)이 높고, '인성 및 봉사활동'(38.8%), '특기/정성'(35.8%)이 뒤를 이었다.

1순위 기준으로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36.2%로 가장 높고, '고교 내신 성적'이 28.4%로 뒤를 이었다

응답 항목	호감 국가(%)	비호감 국가(%)
고교 내신 성적	54.0	28.4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	52.9	36.2
인성 및 봉사활동	38.8	16.8
특기/정성	35.8	14.7
면접	6.7	1.4
동아리 활동 등 교내활동	5.5	0.9
글쓰기/논술	3.5	0.6
경시대회 등 수상실적	2.2	0.8
기타	0.3	0.2

교육 - 국립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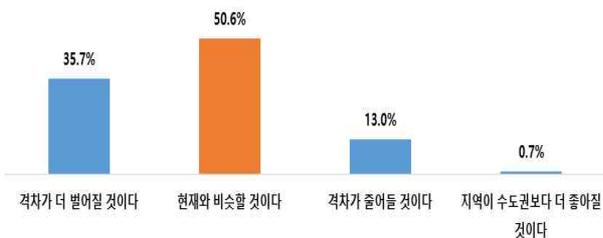
▣ 거주 지역 정치, 경제, 문화 수준 '높다' 다소 높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문화 등의 발전 수준이 어떤지 질문한 결과, '낮다'는 응답이 58.1%로 '높다'는 응답 41.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비수도권(63.7%)이 수도권(52.4%)에 비해 '높다'는 응답이 높았다



▣ 향후 지역 격차, '현재와 비슷' 50.6%로 절반 차지 '벌어질 것' 35.7%, '감소할 것' 12.0%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가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35.7%,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13.0%, '지역이 수도권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0.7%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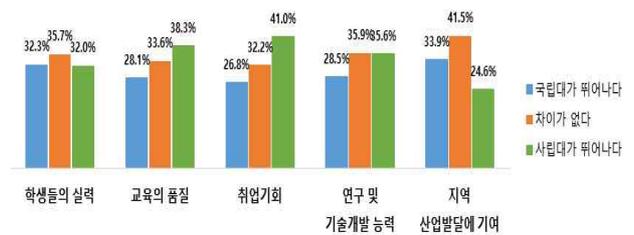
▣ 지역 국립대 역량의 지역 발전 중요도 매우 높아

지역의 주요 국립대의 역량이 지역 발전에 중요한지에 대해 '중요하다'는 긍정층이 81.7%(매우 18.7% + '어느 정도' 63.0%)로 매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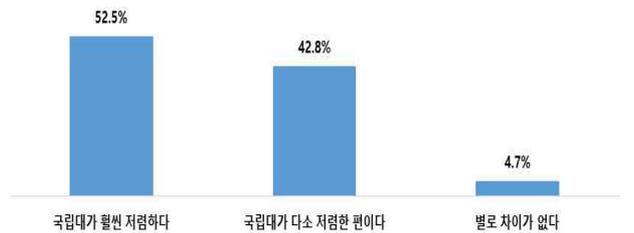
▣ 지역 국립대, 지역산업발달 기여가 수도권 사립대 비해 높아

지역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각각을 비교한 결과, 지역 국립대는 '지역산업발달 기여'에서 높고, '학생들의 실력'은 수도권 사립대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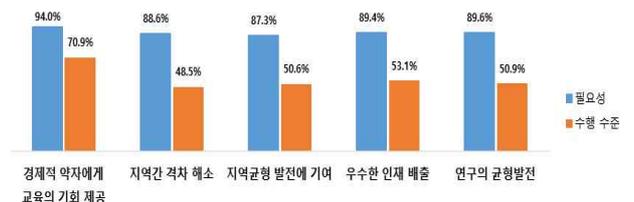
▣ 지역 국립대, 수도권 사립대 대비 교육비 저렴

교육비 차원에서 지역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를 비교한 결과, '국립대가 훨씬 저렴하다'가 52.5%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국립대가 다소 저렴한 편이다'가 42.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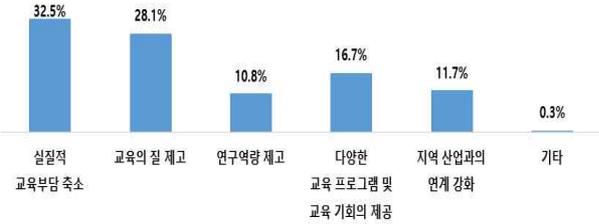
▣ 국립대 역할 요소 '필요성' 높아, 수행 수준은 절반에 엇갈려

5가지의 국립대 역할 요소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렴한 등록금, 기숙사 제공 등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교육기회 제공은 70.9%가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본 반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한다(53.1%), 다양한 학문의 발전을 통해 인재 및 연구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50.9%), 우수 연구성과를 제공하여 지역의 산업발전 등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한다(50.6%) 등의 절반을 전후로 엇갈렸다.



■ 지역 국립대 ‘실질적 교육부담 축소’ 와 ‘교육의 질 제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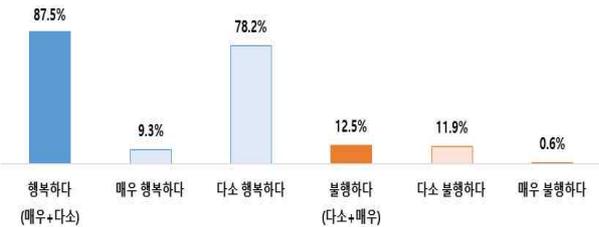
국립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등록금 인하/기숙사 제공 등 실질적 교육부담 축소’가 32.5%, ‘교수 및 교육시설 개선 등 교육의 질 제고’가 28.1%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 심리/생활 환경

■ 본인 행복감 87.5%, 매우 행복은 9.3%에 불과

본인의 삶에 대해 ‘행복하다’는 행복 인식이 87.5%로 매우 높지만, ‘매우 행복하다’는 9.3%에 그쳤다. 반면 ‘불행하다’는 불행 인식은 12.5%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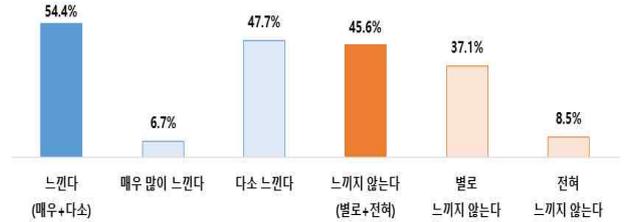
■ 스트레스 질환, 있었다 39.8%

최근 1년간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발생여부에 대해 ‘있었다’는 응답은 40.2%인 반면, ‘없었다’는 응답은 49.8%로 나타났다.



■ 사회 안전 불안감, 국민의 7할 가량이 평소 느껴

평소 안보, 재해, 환경, 질병, 범죄 등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사회 안전 불안층은 54.4%(‘매우’ 6.7% + ‘다소’ 47.7%)로 나타난 반면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45.6%(전혀 8.5% + 별로 37.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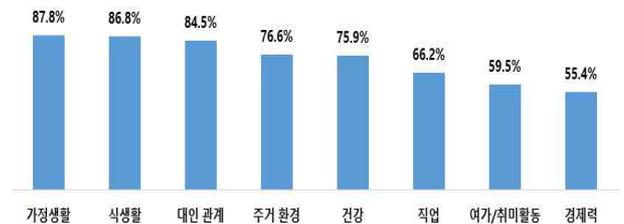
■ 보편적 복지제도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

향후 보편적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긍정 인식이 82.8%(‘반드시’ 23.0% + ‘가급적’ 5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삶의 질 만족도, 대인관계, 가정생활 특히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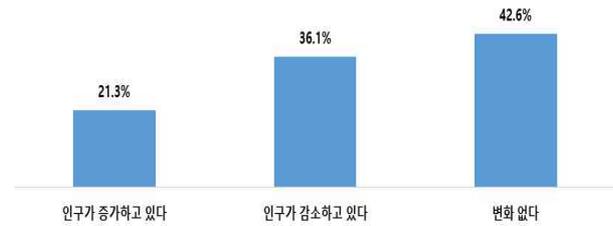
삶의 질과 관련해 각각의 항목별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가정생활’ 87.8%, ‘식생활’ 86.8%, ‘대인 관계’ 84.5%, ‘주거 환경’ 76.6% ‘건강’ 75.9%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력은 51.5%, 여가/취미 활동은 59.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구 구조 변화

■ 거주지 인구 수 변화, 감소 >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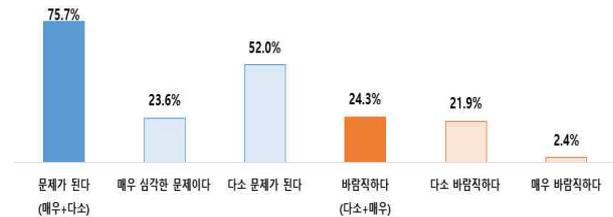
현재 거주지의 인구 수 변화를 질문한 결과, '변화 없다'가 42.6%로 나타난 가운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이 36.1%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 21.3%보다 높았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자 429명은 인구 증가 원인으로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서'(93.2%)가 압도적으로 높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자 725명은 인구 감소 원인으로 '이사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71.6%)가 매우 높았다.

■ 거주지의 인구 변화, '문제가 된다' 75.7%

인구 변화가 있다는 응답자 1154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의 인구변화의 심각성을 질문한 결과, '문제가 된다'는 응답이 75.7%로 응답자의 3/4가량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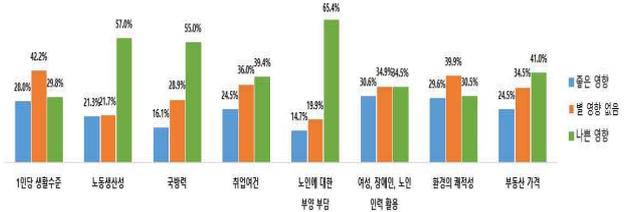
■ 거주지의 인구 변화, 절반이 본인 삶에 나쁜 영향줘

거주지의 인구 변화가 본인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는 응답이 50.6%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는 응답이 27.5%,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가 21.9%로 나타났다.



■ 인구 변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 야기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65.4%), 노동 생산성(57.0%), 국방력(55.0%)에서 특히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생활 수준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에서 높았다. 그 외 척도는 태도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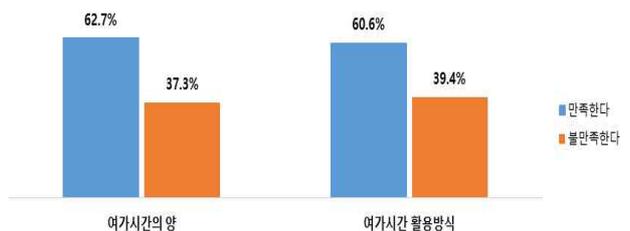


응답 항목	좋은 영향 (%)	별 영향 없음 (%)	나쁜 영향 (%)
1인당 생활수준	28.0	42.2	29.8
노동생산성	21.3	21.7	57.0
국방력	16.1	28.9	55.0
취업여건	24.5	36.0	39.4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	14.7	19.9	65.4
여성, 장애인, 노인 인력활용	30.6	34.9	34.5
환경의 쾌적성	29.6	39.9	30.5
부동산 가격	24.5	34.5	41.0

여가/미디어

■ 여가시간의 양과 질 만족도 60%대

평소 여가시간의 양에 대해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만족층이 62.7%. '불만족한다'는 불만족층은 37.3%로 나타났고, 평소 여가시간 활용 방식에 대해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만족층이 60.6%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불만족층은 39.4%로 나타나, 지난 2016년, 2017년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 주요 매체 이용 시간, 'TV'가 2시간 반 가장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TV, 연령이 낮을수록 온라인 높아

매체별로 1주일 기준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을 질문한 결과, 'TV'가 151.5분으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시청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이 낮을수록 'PC를 이용한 온라인'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및 TV'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항목	평균(분)
종이신문 구독 시간	7.5
TV 시청 시간	151.5
PC를 이용한 온라인 이용 시간	62.0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및 TV 시청 시간	74.7

▣ 정치/사회 뉴스 관심도 2016년 대비 15.8%p 상승

평소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에 관한 뉴스에 관심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관심이 있다'는 관심층은 62.8%로, '관심이 없다'는 무관심층 3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 이하(55.5%)에서는 무관심층이 높게 나타났다.



▣ 정치 뉴스, 지상파 TV, 케이블 TV 자주 하용

각각의 매체에 대해 정치 뉴스 및 정보를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은 지상파 TV 방송이 64.7%로 가장 높고, 케이블 TV 방송 53.2%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주변 지인과의 대화 (47.9%), 포털 사이트(40.1%), SNS(33.5%)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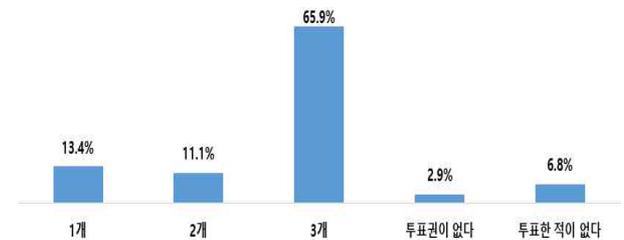


응답 항목	자주 사용 (%)	어느 정도 (%)	사용 안함 (%)
라디오	9.0	16.9	74.1
종이 신문	8.1	12.3	79.6
지상파 TV방송 (KBS, MBC, SBS, EBS)	64.7	29.0	6.3
케이블 TV방송	53.2	31.1	15.7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33.5	25.9	40.6
포털 사이트	40.1	27.4	32.5
PC로 동영상(방송사 웹사이트 등)	21.4	22.1	56.5
모바일/태블릿으로 동영상(팟캐스트 등)	23.4	25.8	50.7
주변 지인과의 대화	47.9	38.6	13.5

정치/이념

▣ 최근 3개 선거 모두 투표 54.0%

조사 진행 시기 전, 시행된 선거(2014년 6월 제5회 지방자치단체 선거,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각각에 대해 투표한 선거를 모두 응답받은 결과, '3개' 선거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는 65.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념 성향, 중도 43.4%, 진보 35.6%, 보수 21.0%

자신의 이념 성향에 대해, '중도적'이 43.4%로 나타난 가운데, '진보적'이 35.6%로 '보수적' 21.0%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정치 상황, 불만족이 82.3%에 달해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 질문한 결과, '불만족한다'는 불만족층이 69.3%로 높게 나타남. 반면 '만족한다'는 만족층은 30.7%로 나타났다.



■ 미투운동, 바람직하다 79.2%로 매우 높아

자신이 당한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는 일명 미투운동(#MeToo)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79.2%(‘매우’ 23.6% + ‘대체로’ 55.6%)로 매우 높았다. 이



■ 바람직한 정치 제도, 대통령 5년 단임제 높아

한국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치제도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40.3%로 가장 높고, '대통령 4년 연임제'가 37.6%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의원집정부제'가 5.5%, '의원내각제'가 3.2%이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4%로 나타났다.



■ 본 조사의 데이터 및 보고서는 KAMOS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http://www.cnukamos.com/kor/main/index.php>

■ 문의 연락처

충남대학교 아시아어문연구소

Tel. 042-821-7410

E-mail. cnucaporci@gmail.com